

국립민속국악원, '새판, 신명의 여정'

25일 재개관 기념공연 예원당서 개최... 신명나는 고품격 전통예술공연 다채롭게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새판, 신명의 여정'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대거 출연해 우리음악과 소리, 춤이 어우러진 고품격 예술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악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문굿과 비나리'를 시작으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행운을 전하는 제비의 여정을 노래한 가야금병창 '제비노정기', 단막창곡 '흥보가 중 박 타는 대목', 민속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악합주와 민요 등 신명나는 고품격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공연장을 찾은 모든 관객들을 위해 오후 2시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전통차 시음행사를 운영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식 떡과 흥보가 기획 음반을 무료로 증정한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새판, 신명의 여정'을 선보인다. (사진은 태평무 공연 모습)

(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 근무복 도입 '주목'

매주 금요일 전 직원 한복 입고 근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최근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전당에 따르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한복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한복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무 시 한복을 입고 근무했다.

생활 개량 한복으로 만든 '한복 근무복'은 태극기의 검은색 '괘'와 바탕이 되는 흰색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했다.

흰색의 옷깃에는 전당의 로고를 패턴형태로 새겨 넣었다. 또 가슴에는 전통 국화매듭에 전당의 영문인isial 'KTCC'를 단 브로치로 장식해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가미했다.

한편 전당은 매주 금요일 전 직원이 한복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고 한복이 명실상부한 신 한류 핵심콘텐츠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한복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 박태준 총괄 프로듀서 선임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로 (주)버디필름 박태준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박태준 프로듀서는 올해 전주프로젝트 행사 전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함과 동시에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한다.

전주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을 지원하는 '점주랩'과 제작 투자 사업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구분되는 영화제의 대표 산업 프로그램이다.

박 프로듀서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 '설국열차'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대중에 알려진 인물이다. 봉준호 감독 작품 외에도 '럭



로그그램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키', '아가씨', '독전'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박태준 프로듀서의 선임과 함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10주년을 맞아 사업 성과와 선정작의 발표회를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다채로운 프

박 프로듀서는 "오랜 기간 영화계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그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영화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 공동 집행위원장은 "박 프로듀서는 영화산업 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극 영화들과 다수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베테랑"이라며 "그가 영화인으로 쌓은 여러 경험이 올해 전주프로젝트 산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인과 중견 창작자들에게 두루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전북대 이현웅 교수, 서울서 독주회 가져

예술의전당서 파가니니·베토벤·비탈리·그리그 등 바이올린 연주

전북대학교 이현웅 교수(예술대 음악과)는 지난 1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BK챔버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독주회에서 이 교수는 파가니니의 D장조 칸타빌레를 비롯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Opus 12 작품 중 첫 번째 곡인 No. 1 in D Major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불리는 비탈리의 사르느 g단조, 미국의 여성 작곡가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 실내악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을 들려줬다.

이에 따르면 섬세함과 파워를 두루 갖춘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현웅 교수는 6세에 바이올린에 입문해 11세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모차르트 협주곡 제3번을 협연하며 데뷔했다. 이후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로 발탁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독일 멘델스존 및 슈만하우스에서 독주회를 가진 한편, 미국, 일본, 이스라엘,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초청 연주 및 협연하는 등 해외 무대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선보여 왔다.



이현웅 바이올린 독주회 리플릿

이 교수는 TTMF양상별 객원악장, 대전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는 전북대 음악과 교수로 임용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Piano on Festival, 예술과 미디어' 공연 성료

장수군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장계면 논개골 행복나눔터에서 닷새간 진행된 Piano on Festival, 예술과 미디어 공연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공연은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 OST와 클래식 작품들을 편곡해 매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파리넬리 △작은아씨들 △라라랜드 메들리 △밀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베토벤 바이러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수록곡인 바흐, 차이코프스키, 베토벤의 곡들의 연주로

진행됐다.

연주와 함께 배경영상, 무대 해설을 곁들여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켰다. 실로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에 매 공연 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임민규 문화관광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공연이 잘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공연, 행사를 개최해 군민들의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ESG경영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6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ESG경영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단 직원들이 ESG를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에 따르면 참석한 직원들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이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향후 자발적으

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ESG경영이 직원들에게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 업무의 중심이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사업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직원 성금모금과 보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위문물품을 전달,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